

지역 소식통

# 식품업체 5곳 익산에 입주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깨끗하고 품위 있는 옥외광고물의 문화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주요내용은 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에 대해 정비 및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있던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유지했으며, 품위 있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아름다운 간판상'을 신설하고, '전자계시대'를 설치해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대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업용 현수막 계시대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광고물 설치 조항을 마련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 시, 도싯골푸드앤씨·퍼스트바이오푸드 등과 분양 계약 체결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기업 유치가 활발하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체결한 (주)한국곡산을 비롯해 최근 한달사이 (주)도싯골푸드앤씨, 퍼스트바이오푸드(주), 농업회사법인 (유)하늘김치, 농업회사법인 성진푸드(주) 5개 식품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체결 기업은 30개사로 늘어났으며 분양률 또한 전체산업용지 대비 23.3% 이전에 비하여 2.8% 상승하였다. 묵은지삼겹살 프랜차이즈 '도싯골'을 운영중인 (주)도싯골푸드앤씨는 1,666㎡(약 504평) 규모의 필지를 분양받아 금년 7월부터 묵은지를 생산예정이며 향후 프랜차이즈 납품의 사업 영역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인 (주)퍼스트바이오'는 해조류를 활용한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해 11,688㎡(약 3,536평) 규모의 필지를 분양받아 금년 말 생산시설을 착공할 예정으로,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신제품 개발도 추진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 (유)하늘김치'는 1,725㎡(약 522평) 규모의 필지를 분양받아 학교 위탁 급식용 김치생산을 위해 3월부터 HACCP 공장을 착공, 6월부터 생산할 계획이며, 향후 입주계

획인 협력업체와 협업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 성진푸드(주)'는 9,415㎡(약 2,848평) 규모의 필지를 분양받아 18년부터 생산예정이며, 기존의 마늘 유통업에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마늘을 이용한 천연조미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도시락과 축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주)한국축산은 7,723㎡(약 2,340평) 규모의 필지를 분양받아 18년부터 사업개시예정이며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가 급등하고 있는 도시락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나아가 중국·태국등 국외 수출까지 계획중이다. /익산=장영민 기자

익산시(시장 문동신)와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문권순)은 지역통계 컨설팅 및 지역수요에 맞는 통계 개발을 위한 지역통계 컨설팅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군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의 통계 환경을 진단하고 통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계의 수집과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지역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통계 컨설팅은 중앙통계기 관인 통계청이 지자체의 지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중장기 통계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매년 통계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군산 통계행정 인프라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및 원인 파악에 나선다. 또한 선진사례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통계 발굴 및 발전계획 제안 등에 관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 군산시-호남통계청, 컨설팅 업무협약

### 통계 환경 진단·네트워크 구축

익산시(시장 문동신)와 호남지방통계청(청장 문권순)은 지역통계 컨설팅 및 지역수요에 맞는 통계 개발을 위한 지역통계 컨설팅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군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의 통계 환경을 진단하고 통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통계의 수집과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지역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통계 컨설팅은 중앙통계기 관인 통계청이 지자체의 지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중장기 통계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매년 통계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군산 통계행정 인프라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및 원인 파악에 나선다. 또한 선진사례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통계 발굴 및 발전계획 제안 등에 관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 군산해경, 안개 선박운항 주의

최근 큰 일교차로 인한 짙은 안개와 불철 해상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선박 운항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북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317척 가운데 125척(39%)이 3월부터 6월에 발생했다. 사고 유형도 짙은 안개로 다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충돌사고(19건), 어망 및 이물질이 선박 스크류에 걸린 사고(18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사고유형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유류선,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점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의 대책마련과 시행에 들어갔다. /군산=문정근 기자



익산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라면 장점마을 암 발병과 관련 주민들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부산물비료공장 주변 지하수, 호수수, 배수로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다.사진은 장점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정한을 익산시장.

## 군산시 해신동 신축청사 개청식

군산시 해신동(동장 김정숙)이 9일 주민센터 신축 청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개청식을 열었다. 개청식에는 문동신 시장을 비롯해 박정희 시의회의장, 시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해신동의 신청사 개청식을 축하했다. 지난 2015년 12월 착공한 해신동의 새 청사는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됐으며, 연면적 1,498㎡, 지상 3층의 현대식 건물이다. 1층에는 넓고 쾌적하게 조성된 민원실이 갖춰져 방문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됐으며, 2~3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대회의실 등이 마련돼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가능, 주민자치공간이 대폭 강화된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군산=문정근 기자

## 정헌을 익산시장, 장점마을 주민들과 현장 소통

### 익산시, 암 발병 원인 부산물비료공장 주변 오염도 검사

익산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라면 장점마을 암 발병과 관련 주민들이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부산물비료공장 주변 지하수, 호수수, 배수로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질 오염도검사 결과 발표에 따라 정한을 익산시장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7가구 중 3가에서 질산성 질소가 초과 검출됨에 따라 건강을 위해 해당 가구에 지하수 음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상수도 미설치 세

대에 빠른 시일 내 상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계획과 역학조사와는 별도로 장점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18일 암 검사 등 건강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장점마을 사태의 원인 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상향반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 및 마을 현지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주민 여론 및 현지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향후 현지에 주민 환경감시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추가 검사를 의뢰한 토양분야(납 등 11개 항목), 대기분야(중금속 17개 항목)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환경 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8일 장점마을 현장행정에 나선 정헌을 시장은 현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영민 기자

## 군산시 보건소,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 선정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가 농촌 지역 읍동자살 예방을 위한 '2017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에 선정됐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 예방협회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노인인구 자살원인 2위인 읍동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농약안전보관함 및 폐농약수거함을 잠금장치를 활용하여 보급한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 개별 농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무료로 보급하고 농촌밀착형 자살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군산시 대야면 2개 마을에서 40여 가구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대

상으로 선정되어 대상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자살예방사업의 생명지킴이로써 생명존중 문화에 기여했다. 군산시 보건소는 지난 2월 희망가구를 신청접수 하여 선정된 4개 마을(대야면 신북, 하광마을, 옥구읍 신기마을, 성산면 산곡마을) 96개 가구에 3월부터 농약안전보관함을 무료 배포하며, 마을 설명회와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월1회 가정방문으로 자살 예방 교육, 우울증검사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산=문정근 기자

## 원광대병원, 보건의료 프로젝트 지원사업 대상 선정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추진 중인 '2017 보건 의료 프로젝트 지원 사업' 대상 병원에 선정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수출 전략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보건의료분야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해 헬스케어 산업분야의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산자부와 KOTRA 양 기관이 추진 한다. 프로젝트 모집 분야는 의료기기·장비수출·의료IT·의료설비·운영(위탁)·설계·시공 분야로 보건의료분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컨소시엄 또는 기업,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다. /익산=장영민 기자

지난 2월 5일까지 지원을 마친, 기관들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검토와 적격 후보 선정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선정 평가와 무역관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추진 사업에서 "중국 여성 한국 프로젝트(건강검진센터 설립)"를 기획, 대상 병원에 선정 된 원광대 병원은 향후 13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 대륙의 해외의료 진출 발판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원광대병원은 그동안 해외환자 유치 지역선도 우수 의료기술 육성 사업, 한-몽 서울프로젝트, 병원서비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등을 비롯해 보건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사업의 국제 및 공공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다. /익산=장영민 기자

행복을 나누는 도시 군산

동북아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